



즉시 배포용: 2024년 3월 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을 맞이하여 **2023년 소비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1억 8,200만 달러를 회복받았다고 발표**

뉴욕주 재정서비스부는 고객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1억 5,800만 달러 이상을 회복해주었으며 단속 집행을 통해 2,300만 달러 배상 확보

이에 앞서 주지사는 공공 서비스부와 뉴욕주 고객 보호국의 협력을 통해 2023년 고객에게 약 970만 달러를 돌려주었다고 발표

주지사가 회계연도 2025년 예산 제안에서 밝힌 소비자 보호 및 뉴욕 주민을 위한 적정가격성 보장 노력의 일환

뉴욕 주민은 [여기](#)에서 재정 서비스부 무료 지원 이용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재정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가 환불 및 배상 등으로 2023년 소비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1억 8,200만 달러 이상을 돌려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DFS는 신고를 접수한 고객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1억 5,800만 달러 이상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DFS 집행 및 감독을 통해 기타 처벌과 더불어 배상금 2,3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앞서,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와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산하 소비자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은 이번 달 초 2023년 소비자에게 약 970만 달러를 반환해주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지사가 회계연도 2025 집행 예산에서 뉴욕 주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발표한 소비자 보호 및 적정가격 어젠다(Consumer Protection and Affordability Agenda)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고객을 보호하고 부당한 기업 관행을 단속하며 뉴욕 주민의 자산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을 맞이하여 제 행정부는 뉴욕 주민이 힘들게 번 돈을 부당하게 잃지 않도록 지원하고 불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책임을 물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등 노력을 두 배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재정서비스부 청장인 **Adrienne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FS는 뉴욕 주민에게 돈을 계속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 182,387,247 달러를

DFS가 확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DFS가 소비자의 불만 대응을 지원하고 더욱 탄력적인 재정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욕 주민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DFS의 소비자 지원 유닛(Consumer Assistance Unit)은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 해결을 지원합니다. 산업 부문 및 기관 내 단속 팀과 협력해 조사를 실시하고 기만 등의 잘못된 관행의 패턴을 바로 잡습니다. 올해 초 [DFS의 발표에 따르면](#), 1997년 창설 이래 서비스부 산하 홀로코스트 청구 처리 사무국(Holocaust Claims Processing Office, HCPO)이 피해자 및 후손의 은행 예금, 보험, 기타 재산 상 손해에 대한 보상 금액으로 1억 8,3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하여 반환했습니다. 사무국은 홀로코스트 피해자 및 후손이 빼앗긴 자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금융부는 250건 이상의 예술 작품의 청산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달 초, 주지사는 뉴욕주가 공공 서비스부가 진행한 약 25,000건의 조사를 통해 약 700만 달러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산하 소비자 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이 270만 달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어 2023년 총 소비자 반환액이 약 97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재난 복구, 사기 및 사이버 보호,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지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자와의 분쟁과 관련한 지원은 www.dfs.ny.gov/complaint를 방문하거나 (800) 342-3736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주지사의 소비자 보호 및 적정가격 어젠다

Hochul 주지사는 회계연도 2025 집행 예산(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만적인 관행을 단속하고 뉴욕 주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보호 및 적정가격 보호 어젠다를 공개했습니다. 주지사의 예산에는 기업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뉴욕의 소비자법을 개정하고 Buy Now Pay Later 대출 업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 전국을 선도하며 30여년 만에 최초로 유급 병가를 크게 확대하고 특정 보험 상품에서 인슐린에 대한 공동 부담을 없애는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하며 의료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작년 비용 상승과 의료 부채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2022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여 라이브 행사 티켓 구매 시 추가 비용을 숨겨서 청구하는 행위를 막고 캘퍼 봇 및 입장권 구매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무료 입장권 판매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며, 전자적으로 배달되거나 집에서 인쇄된 입장권에 대한 배송비 수수료를 금지했습니다.

Kevin Thoma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을 맞이하여, 저는 우리가 뉴욕 소비자들이 보호받고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롭습니다. 소비자에게 1억 8,200만 달러를 직접 돌려준 기록을 세운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과 재정서비스부의 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배상과 환불이 뉴욕 주민에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Nily Rozic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고 지원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인식 제고와 소비자 수요 반영을 통해 우리는 개인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고 권리를 찾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 및 행정부와 함께, 저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번주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